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화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복사기로 통용되는 제록스나 문서를 제본할 때 사용하는 스탭플러를 호치키스로, 두통약을 아스피린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품이 엄청나게 팔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 그리고 지난 1969년 설립된 한미실업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

## 명가(名家)의 새로운 도전 한미실업



### 파이프처럼 올곧은 외길 경영

비닐하우스용 필름을 생산하던 한미화학공업이 설립된 것은 지난 1969년. 그리고 이듬해 PVC호스로 발명특허를 획득하면서 한미실업은 물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그 어느 곳보다 먼저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당시의 한미화학공업에서 생산하는 PVC호스는 그 어느 곳의 제품보다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고 그 덕분에 '한미'라는 이름은 PVC호스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 1980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진공청소기 호스는 현재까지 굴지의 대기업에 납품되고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반증. 한미실업은

1982년부터 PE하수관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주택 500만호 건설 시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트럭들이 한미실업의 제품을 실어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공장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한미실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다.

“한미실업은 우리나라 연성관 분야의 선구자나 다름없다고 자부합니다. 국내 사정상 상하수도 관련 업체 중에는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있지요. 하지만 저희는 무엇보다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호스라고 하면 한미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고객이 많을 정도니까요.”

창업주인 김봉희 회장의 뒤를 이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문석 사장은 한미실업의 꾸준함에 대해 고객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있어 고객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어 온 한미실업이 현재 야심차게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PCF관. PCF관은 국내 최초의 PE관인 THP관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제품으로서 1989년부터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이미 조달청 단가 계약품목으로 지정되었다. PCF관은 기존의 PE관에 비해 4~8배 정도 높은 강도를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PE관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원료를 사용해야 했으며 그나마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한미실업의 PCF관은 이런 단점을 모두 해결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PCF관은 현재까지 출시된 어떤 관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미실업 외에도 철관매입관을 생산하는 곳이 몇 곳



더 있지만 그 품질은 저희 PCF관의 1/2도 되지 않습니다. PCF관의 구성 원재료 중 가장 중요한 철판이 관벽 내부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힘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충분히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귀홍 품질경영팀장은 내년 워터코리아 행사장에서 PCF관의 뛰어난 성능을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내년, 꼭 두고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한미실업의 주력제품이 PCF뿐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노후화가 집약된 제품들은 얼마든지 있다. 암거배수용으로 20년 이상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THP유공관과 지중전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ELP파형관, 최근에 개발된 SEP고강도 파형관은 기존 전선관 보다 압축강도가 5배 이상 강한 제품으로서 한전에 공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내마모성

과 내압이 우수하면서도 유연성이 우수한 복합고무호스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한미실업은 관류의 전문 메이커이자 선두업체로서 국내 최초의 PE 하수관인 THP관을 비롯하여 THP유공관, ELP지중전선관, SEP고강도 전선관, 고강도 하수관인 PCF관 등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국내에 출시하였다. 특히 PCF관은 국내 연성관중 압축강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하수관거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이 요구 하는 품질수준이죠. 하수관은 지하에 매설됨으로 외압에 강해야 하고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성관의 품질기준이 시공 후 변형률이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실업의 PE관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관입니다. 또한 PCF관은 여기에 월등한 강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조귀홍 품질경영팀장은 현재 하수도법에 제시된 하수도용 자체의 기준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종류별, 용도별, 성능별로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실업은 관류업계의 전문메이커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낭중지추’라는 성어가 있다. 송곳은, 감추어도 언젠가 그 끝이 드러난다는 뜻의 이 말이 한미실업에게는 더 없이 어울리지 않을까?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들이 그 예리함을 뽐낼 내년이 진심으로 기대된다.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회 기업회원의 기업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문의 : 기획처 홍보팀 신재택 (직통전화 : 02-3156-7731)

## PRODUCTS

### 한미실업의 자랑, PCF관

PCF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파형 부분에 강판이 접착된 형태라는 것. 강판의 특성상 어떤 재질의 소재도 부착이 쉽지 않지만 한미실업은 일본 동척회사의 최첨단 기술과 자체 개발한 특수 액체를 이용한 화학처리로 기존의 맹점을 모두 해소시켰다. 이렇게 내부에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강판이 있다 보니 5% 압축 시 외압강도가 KS F 4403에 규정한 철근콘크리트관의 균열하중과 같은 정도. 덕분에 시가지의 도로, 운동장, 임도시설 등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산과 알칼리, 염분 등 각종 유기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며 세균이나 부식성 물질에 의한 녹 발생이 전무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영하 80℃에서도 동파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용이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공현장에서 환경 받을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강도는 철근콘크리트관과 동일하면서도 무게는 PE관 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그 어떤 관보다 시공이 간편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